

##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과 한양진경

정재훈(경북대 사학과 교수)

### 1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단지 그림 재주로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조선후기의 문화를 대표하는 진경산수화를 창안하고, 완성하기까지 한 뛰어난 예술가로서 인정되어 왔다. 정선의 대표적 그림인 진경산수의 소재로는 금강산과 관동팔경, 서울과 그 주변, 경상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그의 주요활동 무대였던 서울은 아무래도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소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서울, 곧 조선시대 한양의 진경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경교명승첩》을 중심으로 정선이 그린 한양진경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정선이 양천 현령으로 부임한 것은 영조 16년(1740) 초가을이다. 그 전해 12월 11일 연말도정(都政)에서 정선의 인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양천현은 지금 서울의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로서 현재는 아파트가 가득 들어찬 가양지구 한 복판에 현아(縣衙)가 위치가 곳이었다. 예로부터 양천은 경강(京江)인 한강의 목구멍에 해당하는 요충일 뿐만 아니라 삼각산으로부터 북악산,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백색의 바위봉우리들이 남산과 한강과 어우러지면서 천하 절경의 도읍인 한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천하의 명당자리에 위치한 고을이다. 더구나 서해바다와 한강이 만나는 곳이어서 각종 어류가 풍부한 고장이며, 조운선이 지나가는 곳이니 천혜의 요지인 고을이 아닐 수 없다.

상당하게 배경이 두터운 인사들이 주로 차지하였던 이 양천 고을의 수령을 맡게 된 데에는 영조를 비롯한 당시 서인 노론층의 각별한 지원을 받은 정선이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영조는 도승지 이춘제와 병조판서 조현명의 조언을 받아 정선으로 하여금 한강을 오르내리며 한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게 만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선이 양천으로 떠나게 되자, 동심지우(同心之友)인 사천 이병연과 석별의 정을 나누며 시화환상간(詩畫換相看) 즉, ‘시와 그림을 서로 바꿔보자’는 약속을 굳게 하고 떠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겸재는 부임하자마자 양수리 일대로부터 양천현 일대에 이르는 한강 주변의 명승지들을 화폭에 담아 부지런히 사천에게 보냈고, 이병연도 이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정선은 그때마다 두 벌의 그림을 그려서 한 벌은 이병연에게 보내고, 한 벌은 자신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경신년(1740) 겨울 세밑부터 신유년(1741) 동짓달까지 만 1년 동안 그린 그림들과 이병연으로부터 보내 온 시와 편지를 합장하여 화첩을 꾸몄다. 그 화첩이 현재 간송미술관에 비장된 《경교명승첩》 상·하 2첩이다.

《경교명승첩》 상권은 19폭의 그림이 있는데 제목은 각각 <독서여가(讀書餘暇)>, <녹운탄(綠雲灘)>, <독백탄(獨栢灘)>, <우천(牛川)>, <미호(溟湖)1>(석실서원(石室書院)), <미호(溟湖)2>(삼주삼산각(三洲三山閣)), <광진(廣津)>, <송파진(松坡津)>, <압구정(狎鷗亭)>, <목역조돈(木覓朝暉)>, <안현석봉(鞍峴夕烽)>, <공암층탑(孔岩層塔)>, <금성평사(錦城平沙)>, <양화환도(楊花喚渡)>, <행호관어(杏湖觀漁)>, <종해청조(宗海廳潮)>, <소악후월(小岳候月)>, <설평기려(雪坪騎驢)>, <방천부신(氷遷負薪)>이다. 이 중 <독서여가>는 한 인물이 뒷마루에 앉아 한가로운 시간

을 보내고 있는 장면으로 이 인물은 정선의 자화상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그림들은 대부분 양화진, 광진, 송파진 같이 한강변에 있던 실제하는 명소를 그린 것이다.

하권에는 〈인곡유거(仁谷幽居)〉, 〈양천현아(陽川縣衙)〉, 〈시화환상간(詩畫換相看)〉, 〈홍관미주(虹貫米舟)〉, 〈행주일도(滄洲一棹)〉, 〈창명낭박(滄溟浪泊)〉, 〈은암동록(隱岩東麓)〉, 〈장안연우(長安烟雨)〉, 〈개화사(開花寺)〉, 〈사문탈사(寺門脫蓑)〉, 〈척재제시(惕齋題詩)〉, 〈어초문답(漁樵問答)〉, 〈고산상매(孤山賞梅)〉, 〈장안연월(長安烟月)〉 등 14폭이 포함되어 있다.

## 2

《경교명승첩》에 수록된 그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화첩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소재는 한양과 그 주변, 곧 교외의 자연 명승지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양수리 부근부터 양천현아가 있던 한강하류까지 한강변의 명승지가 첫 번째 주목이 된 소재이다. 녹운탄, 독백탄, 우천, 미호, 광진, 송파진, 압구정, 남산, 안현, 공암, 양화진, 행호, 소악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양, 곧 서울과 서울의 안쪽을 소재로 삼았다. 한양의 전경(〈장안연월〉), 북악산 대은암(〈은암동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자연적인 명승만이 아니라 정선이 관련된 거처나 지역을 상세하게 소재로 삼았다. 북악산 유란동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독서여가〉), 인왕산에 살던 자신의 집인 인곡정사(〈인곡유거〉), 자신이 현령으로 있었던 양천현과 관련된 여러 그림(〈양천현아〉, 〈종해청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당대 서울의 풍속을 엿볼 수 있는 풍속화에 해당하는 그림도 있었다. 정선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 당대의 사대부나 시민의 일상 풍속을 그린 그림들도 여럿 있다.(〈설평기려〉, 〈방천부신〉, 〈사문탈사〉, 〈척재제시〉)

이 가운데 몇 개의 그림을 상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상권의 첫 번째 그림인 〈독서여가〉의 경우 정선이 50대 초반에 북악산 아래 유란동에서 생활하던 모습을 그린 자화상으로 추정된다. 중치막에 사방관을 쓰고, 부채를 펴들고 화분에 정신을 빼앗긴 채 그림의 이치를 탐구하는 화성(畫聖)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우천〉은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 일대를 그린 것으로 사옹원의 분원이 있던 곳이다. 궁중의 도자기 제작을 맡고 있던 이 분원은 영조대에 최절정기를 맞아서 조선적인 고유한 기형(器形)과 독특한 색깔, 질감을 자랑하는 조선백자를 생산하던 산실이다. 동서남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절경의 지형을 잘 표현하였다.

〈미호1-석실서원〉은 조선후기에 문화운동의 중심지였던 석실서원을 그린 것이다. 병자호란 때에 절의를 지킨 선원 김상용과 청음 김상헌, 그리고 이를 계승한 문곡 김수항, 노봉 민정중, 정관재 이단상, 농암 김창협 등을 배향한 이곳은 정선도 가끔 들러서 김창협으로부터 배움을 청하였던 곳이다. 나아가 미호 김원행 대에는 호락논쟁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창출하는 기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 사상의 연원과 같은 석실서원은 자연과 인문이 어우러진 최고의 소재가 되었다.

〈광진〉과 〈송파진〉은 서울의 동쪽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그린 것이다. 육로를 지나면서 반드시 강을 건널 수 밖에 없던 조선시대에 나루터는 곧 교통과 상업의 결절점으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 수 밖에 없었다. 〈광진〉은 서울에서 충청좌도와 강원도, 경상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송파진〉 역시 서울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었다.

〈압구정〉은 세조대 권신이었던 한명회의 정자를 그린 그림이다. 지금은 아파트숲이 되어 버린 이곳은 한강변 가운데서도 경치가 빼어난 곳으로서 역대 권문세가들이 탐을 내던 곳이었다. 잠실 쪽에서 흘러온 한강을 배경으로 하여 멀리는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을 배경으로 하고 근경으로는 남산을 그림으로써 산과 강이 어울어진 절경의 한강변 풍경을 그려내었다.

〈목멱조돈〉과 〈안현석봉〉은 남산과 안현의 모습을 잘 포착한 그림이다. 서울의 안산(案山)인 남산은 서울을 둘러싼 네 개의 산 가운데 북악산, 낙산, 인왕산이 백색의 화강암인 것에 비해 흙이 많은 토산으로 독특하다. 안현은 인왕산의 바깥을 막아주는 외백호에 해당한다. 그림에서도 표현된 바와 같이 봉수가 있던 이곳은 정선이 있던 양천에서는 서울쪽 방향에 해당하므로 서울의 고향을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다.

〈양화환도〉와 〈행호관어〉는 양화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는 모습과 행호(杏湖)에서 고기잡는 것을 구경하는 그림이다. 한양에서 경기 서부의 김포나 부평, 인천, 강화를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양화진은 고려 이래로 중요시된 곳이다. 이곳은 광활한 백사장과 호수같은 너른 강물이 위아래로 이어져 장강의 풍모를 갖춘 명승지이다. 행호 역시 양천 앞에 이르러 한강물의 강폭이 넓어진 곳으로서, 경치도 경치려니와 별미중의 별미인 웅어와 하돈이라고 불리우는 복어가 잡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3~4월 제철을 맞아 고기잡이를 하는 모습을 포착하여 그린 것이다.

인왕산의 정선이 살던 집을 그린 〈인곡유거〉는 그가 살던 진경시대의 사대부 집이 가지는 품격을 잘 표현한 그림이다. 조출한 생활분위기를 꾸밀 수 있었던 데에는 개결한 선비였던 정선이었기에 가능하였다. 정선이 재직하였던 양천현의 관청을 그린 〈양천현아〉 역시 관아 건물의 중심에 있던 종해헌을 중심으로 단정하게 잘 그렸다.

눈 쌓인 별판을 나귀 타고 가다는 뜻의 〈설평기려〉는 정선이 영조 16년(1740) 초가을 양천 현령으로 부임해 그해 겨울에 그린 그림이다. 벗인 사천 이병연이 동지 이틀 전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 직전에 이 그림이 그려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겨울 어느날 정선이 새벽에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온 천지가 새하얀 눈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양이다. 문득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길을 따라 어디론가 하염없이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던가 보다. 그래서 샷갓과 눈웃을 차려입고 나귀에 올라 아무도 몰래 동헌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길을 나섰던 듯하다. 그런 정황을 잘 표현한 그림이다.

얼음벼루에서 나무를 지다는 뜻인 〈빙천부신〉은 천지 사방에 눈이 가득 쌓인 어느 추운 겨울날 퐁퐁 얼어붙은 한강가 얼음벼리에서 백성들이 나뭇짐을 지고 오르는 위태로운 장면을 목격하고 그린 그림이다.

〈시화환상간〉은 정선이 양천 현령으로 부임하면서 이병연과 석별의 정을 나누며 시화환상간(詩畫換相看) 즉, '시와 그림을 서로 바꿔보자'는 약속을 굳게 하고 떠났던 정황을 그린 그림이다. 바로 이 《경교명승첩》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그린 그림이다.

정선은 이병연과 단 둘이 지금 청와대 서쪽 별관 근처의 북악산 기슭 개울가의 어느 노송(老松) 밑에 앉아 시전(詩箋·시 쓰는 종이)과 화전(畫箋·그림 그리는 종이)을 펼쳐놓고 시화를 논하며 시화환상간의 약속을 했던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아직 늦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아침저녁으로 선들바람이 부는 그런 철이라서 배옷을 채 벗지 못한 듯하니 소나무에서는 매미의 구성진 울음소리가 물소리를 제압할 만큼 크게 울려 퍼질 듯하다.